

제 1 교시

국 어

1. '형'의 말하기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생: 형, 배구 경기가 언제 시작하지?
형: 어제 모든 프로 축구 경기는 취소되었어.

- ① 대화 맥락에 어긋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상대의 이익을 우선하며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③ 통계 자료를 과도하게 해석하며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④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다.

2. 다음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토론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찬성: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건설되어야 합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 전력 생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 저는 오히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

- 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②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건설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④ 친환경적이어서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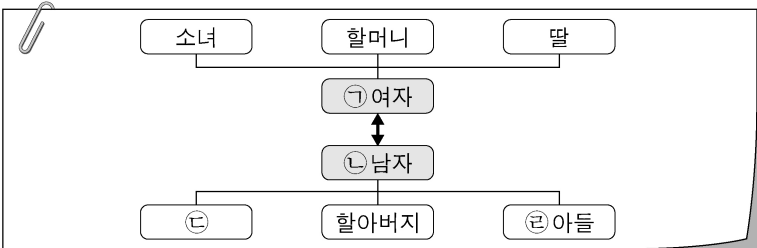
3. 밑줄 친 단어 중, 다음 규정을 적용한 예가 아닌 것은?

한글 맞춤법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중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 ① 하늘에 별이 술하게 있다.
② 친구와 같이 사업을 했다.
③ 우리는 해돋이를 기다린다.
④ 이제 구름은 말짱히 건혀 버렸다.

4.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의미적으로 서로 대립한다.
② ㉠과 ㉢은 반의 관계이다.
③ ㉢에는 '소년'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다.
④ ㉢은 의미 관계로 보아 ㉡에 포함된다.

5. ㉠~㉣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너와 나는 왜 다를까?
㉡ 그는 방에서 빵을 먹고 있다.
㉢ 밤[夜]에 밤[栗]을 먹을 때는 벌레를 조심하렴.

- ① ㉠의 '너'와 '나'의 모음은 혀의 높낮이가 서로 다르다.
② ㉠의 '왜'는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다.
③ ㉡의 '방'과 '빵'의 'ㅂ'과 'ㅃ'은 조음 위치가 같다.
④ ㉢의 '밤[夜]'과 '밤[栗]'은 소리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

6. 다음 중, 밑줄 친 문장 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국어의 문장 성분은 크게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우아, 우리가 이겼다.
② 친구가 책을 읽고 있다.
③ 그 사람이 우유를 마셨다.
④ 동생이 드디어 가수가 되었다.

7.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제: 당류 섭취량을 줄이자.

- I. 서론: 우리 국민의 과도한 당류 섭취량
II. 본론
1.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량이 많은 이유
가. 당류 과다 섭취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 부족
나. 당류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
다. 하루에 섭취해야 할 적정 당류량에 대한 정보 부족
2. 당류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

III. 결론: 당류 섭취량을 줄여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

- ① 1일 당류 권장량에 대한 홍보 포스터 게시
② 당류 선호 식습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
③ 당류 함유량이 높은 음식에 대한 가격 인하
④ 과도한 당류 섭취의 부작용을 알리는 광고 배포

8. ㉠~㉣을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는 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돼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저는 토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게 맞는 판단을 신속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무사히 ㉢맞혔습니다. ㉣칭찬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 ① ㉠: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므로 '되어'로 수정한다.
② ㉡: 잘못된 조사 사용이므로 '그에서'로 바꾼다.
③ ㉢: 정확한 단어 사용이 아니므로 '마쳤습니다'로 고친다.
④ ㉣: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 옛이야기 지출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얽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썩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전설(傳說)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밭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정지용, 「향수」 -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설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토속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청자를 표면에 내세우며 부끄러운 현실을 고백하고 있다.

10. ㉡에 사용된 감각적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싸늘한 가을바람이 불어
- ② 향기로운 꽃냄새에 이끌려
- ③ 소태같이 쓴 맛의 풀잎을 씹고
- ④ 푸른 휘파람 소리가 컷가에 맴도는데

11. ㉠~㉣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기법

- ① ㉠ ② ㉡ ③ ㉢ ④ ㉣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한평생 북을 치며 방랑하던 민 노인은 아들 민대찬의 집에 얹혀살게 되면서 아들 내외의 반대로 북 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던 중, 손자 성규의 부탁으로 대학생들과 함께한 탈춤 공연에서 북을 치게 된다.

[A] 민 노인의 북은 요긴한 대목에서 뚝뚝 울렸다. 찌지는 소리를 내는 팽과리며 장구에 파묻혀 제값을 하지는 못해도, 민 노인에게는 전혀 개념할 일이 아니었다.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공연 전에 마신 술기운도 가세하여, 탈바가지들의 손끝과 발목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북소리는 툭툭 꽃혔다. 그새 입에서는 얼씨구! 소리도 적시에 흘러나왔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가락과 소리와, 그것을 전체적으로 휩싸는 달착지근한 장단에 자신을 내맡기고만 있었다.

그날 밤, 민 노인은 근래에 흔치 않은 노곤함으로 깊은 잠을 잤다. 춤판이 끝나고 아이들과 어울려 조금 과음한 까닭도 있을 것이었다. 더 많이는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이 꿈도 없는 잠을 거쳐 상큼한 아침을 맞게 했을 것으로 믿었는데 그런 호뭇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 저녁때가 되어 외출에서 돌아온 ㉠ 며느리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성규를 찾았고, 그가 안 보이자 민 노인의 방문을 밀쳤다.

“아버님, 어저께 성규 학교에 가셨어요?”

예사로운 말씨와는 달리, 굳어 있는 표정 위로는 낭패의 그들이 짝 깔려 있었다. 금방 대답을 못 하고 엉거주춤한 형세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는 민 노인의 면전에서, ㉡ 송 여사의 한숨 섞인 물음이 또 떨어졌다.

“북을 치셨다면서요.”

“그랬다. 잘못했니?”

우선은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힐문에 부아가 꾸역꾸역 치솟고, 소문이 빠르기도 하다는 놀라움이 그 뒤에 일었다.

“아이들 노는 데 구경 가시는 것까지는 몰라도, 개들과 같이 어울려서 북 치고 장구 치는 게 나이 자신 어른이 할 일인가요?”

“하면 어쩌서. 성규가 지성으로 청하길래 응한 것뿐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 이번에도 내가 너들 체면 깎았냐.”

“아시니 다행이네요.”

송 여사는 후닥닥 문을 닫고 나갔다.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며느리는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밖에 나갔다가 성규와 같은 과 학생인 ㉢ 진숙이 어머니한테서 들었다는 얘기를 전했다. 진숙이 어머니는 민 노인이 가면극에 나왔다는 귀뜸에 잇대어, ㉣ 성규 어머니는 그렇게 멋있는 ㉤ 시아버지를 두셔서 참 좋겠다며 빈정거리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 최일남, 「흐르는 북」 -

12. [A]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 상황을 통해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의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의성어를 활용하여 암울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3. ‘민 노인’에 대한 떠느리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민 노인을 비판한다.
- ② 무리하게 복을 치는 민 노인의 건강을 걱정한다.
- ③ 민 노인이 복을 친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다.
- ④ 성규를 위해 공연에 참석한 민 노인에게 고마워한다.

14. ㉠~㉣ 중,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 ③ ㉠, ㉢, ㉡ ④ ㉢, ㉡, ㉣

[15~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흥더이고
 턴상(天上) 벽옥경(白玉京)을 엇디호야 니별(離別)호고
 히 다 더 저믄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중략>

저근덧 녀진(力盡)호야 풋좁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호야 ㉠ 쫘의 님을 보니
 옥(玉) ㄴ튼 얼구리 반(半)이 나마 늘거세라
 므음의 머근 말슴 슬꺃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 흥며
 정(情)을 못 다호여 목이조차 메여 하니
 오던된 ㉡ 계성(鷄聲)의 좁은 엇디 씨뚫던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브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쏴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각지님 둘이야크니와 ㉣ 구준비나 되쇼셔

- 정철, 「숙미인곡」 -

1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개의 연으로 나누어져 있다.
- ② 3음보의 행이 제한 없이 나열되어 있다.
- ③ 노래로 불렀기 때문에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다.
- ④ 두 명의 화자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
- ② ㉢: 임과의 만남이 중단되는 계기
- ③ ㉡: 임을 그리는 마음을 나타내는 소재
- ④ ㉣: 임의 소식을 전해 주는 매개체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禮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쟁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나?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喪人)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하는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번오기(樊於期)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武靈王)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대명(大明)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짓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소매 넓은 옷을 고쳐 입지 않고 판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나?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나?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왔다.
 ㉠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 있고, 허쟁은 간 곳이 없었다.

- 박지원, 「허쟁전」 -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 세상을 자연에 빗대어 풍자하였다.
- ② 인물의 정서를 3·4조 운율로 표현하였다.
- ③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하여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 ④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대화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였다.

18. [A]에 나타난 ‘허쟁’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리를 부정하며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 ② 상대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며 상대를 꾸짖고 있다.
- ③ 역사적 인물을 내세워 상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④ 상대의 무능한 태도에 분노하며 상대를 위협하고 있다.

19.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결말을 열어 두어 상상의 여지를 남겼다.
- ② 과거 회상을 통하여 역순행적 구성을 완성하였다.
- ③ 비극적 결말로 마무리하여 권선징악의 교훈을 주었다.
- ④ 인물의 현실 순응적 모습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였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형적인 서양의 풍경화를 눈여겨보면, 설령 화폭에 인물이 그려지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화면 밖에 반드시 한 사람의 관찰자가 있어서 이젠 앞에 못 박힌 듯이 서서 주위 풍경을 측량하듯이 바라보는 차갑고 단조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자연 풍경을 그렸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앞에 인간이 있으며, 그 인간이 바로 모든 풍경의 기준점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풍경화 속의 부분 부분은 한결같이 작품 밖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한 개인, 즉 객관적인 관찰자와의 관계 속에서 투시법적으로 형태가 결정되어 그려진다.

이와는 달리, 우리 옛 산수화에서는 어디까지나 ㉠ 산수 자체가 주인공이다. 사람은 주인공인 산을 소중하게 한가운데 모셔 두고서 치켜다 보고, 내려다보고, 비껴 보고, 휘둘러 봄으로써 산수의 다양한 실제 모습에 접근하려 한다. 산수화의 목적이 자연의 ㉡ 형상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러나는 기운까지 담아내는 것이라고 할 때, 서양의 일점투시는 일견 과학적인 듯 보이지만 카메라 앵글처럼 포용력이 부족한 관찰 방식이다. 일점투시는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의 ㉢ 산물인 까닭에 자연의 살아 있는 모습을 따라잡는 데는 실로 많은 어려움을 드러낸다. 애초에 산이란 것이 하나의 숨 쉬는 생명체라면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 양보를 ㉣ 전체로 하는 동양의 고차원적 인본주의, 즉 회화적으로는 삼원법에 의해서만 충분히 표현된다.

<중략>

옛 그림의 삼원법, 즉 고원, 심원, 평원의 다양한 시각이 어떻게 「몽유도원도」라는 한 화면 속에 무리 없이 소화되고 있는가? 그 점을 눈여겨보는 것이 사실 옛 산수화를 보는 재미의 가장 커다란 부분의 하나다. 얼핏 생각하기에 다양한 시각이 뒤섞여 있으니 작품 전체가 매우 이상하게 보일 직한데, 오히려 옛 산수화를 보면 마음이 평온하기 그지 없다. 그것은 서양의 투시 원근법상의 논리로부터 슬그머니 도망쳐 나온, 수없이 많은 자잘한 여백들이 경물과 경물 사이를 매개하기 때문이다.

- 오주석, 「옛 그림의 원근법」 -

20. 윗글의 서술상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몽유도원도」를 예로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일점투시의 역사적 변화를 단계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③ 전형적인 서양 풍경화와 우리 옛 산수화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있다.
- ④ 옛 산수화를 볼 때 눈여겨볼 만한 점을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21.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점투시는 자연의 살아 있는 모습을 포용력 있게 가장 잘 구현하는 방법이다.
- ② 전형적인 서양 풍경화에서는 화면 밖 관찰자의 차갑고 단조로운 시선이 느껴진다.
- ③ 산수화의 목적은 산수의 형상과 더불어 그 기운도 화폭에 표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④ 인간이 풍경의 기준이 되는 전형적인 서양의 풍경화와 달리 우리 옛 산수화는 산수가 주인공이 된다.

22.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산과 물이라는 뜻으로 경치를 이르는 말
- ② ㉡: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 ③ ㉢: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
- ④ ㉣: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가가 ㉠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서 당장 기술 개발과 상대적으로 무관해 보이는 기초 과학 연구까지도 지원해야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과학은 과학 문화로서 가치가 있다. 과학 문화는 과학적 세계관을 고양하고, 합리적 비판 정신을 높게 사며, 현대 사회가 만들어 내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균형 잡힌 전문가를 키우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우주론, 진화론, 입자 물리학과 이론과학의 연구는 우리 세계관을 형성하며,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새로움을 높게 사는 과학의 정신은 합리성의 원천이 된다. 토론을 통해서 오류를 제거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학의 의사소통 과정은 바람직한 전문성의 모델을 제공한다. 이러한 훈련은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만이 아니라 인문학이나 사회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 모두에게 폭넓게 제공되어야 한다.

(나) 둘째, 기초 연구는 (㉡)을/를 위해서 중요하다. 대학에서 즉각적으로 ㉢ 기술과 산업에 필요한 내용만을 교육한다면, 이런 지식은 당장은 쓸모가 있겠지만 미래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무력하다. 결국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학생들에게 과학의 근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연구 결과를 내는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남이 해 놓은 것을 조금 개량하는 데에서 머무르지 않고 정말 새롭고 혁신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지식의 기반 수준에서 창의적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기초 과학 연구가 제공할 수 있다.

(다) ㉣ 기초 과학과 기초 연구가 왜 중요한가? 토대이기 때문이다. 창의적 기술, 문화, 교육이 ㉤ 그 위에 ㉥ 굳건한 집을 지을 수 있는.

- 홍성욱, 「기초 과학의 진정한 가치」 -

2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단어의 어원을 밝히며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② (나): 공간 이동에 따라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 ③ (다):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중심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나), (다): 직접 실험하여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24. (나)의 문맥으로 보아,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육 ② 기술 ③ 문화 ④ 산업

25. ㉠~㉣ 중, ㉤가 지시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